

■ DRE수학 수업 시스템 표준 매뉴얼 (Standard Operating Manual)

DRE수학 수업 시스템 표준 매뉴얼

누구나 동일한 품질의 DRE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행 가이드
대상

- DRE수학 원장
- 전임 강사
- 신입 강사
- 파트·대체 강사

1. 이 매뉴얼의 목적

이 매뉴얼은

“누가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강사의 경력, 설명 능력, 말솜씨에 따라 같은 교재,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만족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는 강사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수업이 개인 역량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DRE수학은 이 방식에서 벗어난다. DRE수학은 강사의 말재주나 설명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DRE수학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수업을 지향한다.

즉, 수업의 핵심은

“누가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이 매뉴얼은

DRE수학이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정립한 수업의 순서, 질문 방식, 개입 기준, 판단 원칙을 누구나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행 문서이다.

이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면

- 신입 강사도
- 대체 강사도
- 경력이 짧은 강사도

개인의 방식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같은 방향, 같은 흐름, 같은 기준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 입장에서는 강사가 바뀌어도 수업 방식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동일한 구조 안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선생님 수업이냐”가 아니라
“DRE수학 시스템 수업이냐”를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매뉴얼의 최종 목적은 단순하다.

DRE수학의 수업을
개인의 역량이 아닌
시스템의 힘으로 유지·확장하는 것.

이 문서에 적힌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순간, 그 수업은 이미 DRE수학 수업이다.

2. DRE수학의 정체성

DRE수학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다.

DRE수학은 학생이 수학을 대하는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곳이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DRE수학은 문제 풀이 이전에 사고의 방향과 태도부터 코칭한다.

DRE수학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는 설명보다

“지금 어디에서 막혔는지 말해보자”라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정답을 맞히는 순간보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학생이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DRE수학의 수업은

강사가 앞에서 설명하고

학생이 따라 적는 구조가 아니다.

학생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말로 설명하고,

다시 적용해 보는 구조다.

교사는 그 과정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끌어내는 코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DRE수학에서는

교사의 설명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
기다리는 태도,
개입을 절제하는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DRE수학이 추구하는 수업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것이다.

- 학생이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않고
- 스스로 생각의 실마리를 찾으며
- “이건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상태

이 상태가 만들어지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DRE수학은 단기간의 점수 상승보다
지속 가능한 사고력과 학습 태도를 우선한다.
그래서 DRE수학의 모든 수업은 진도보다 이해를,
속도보다 구조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에 둔다.
이것이 DRE수학의 정체성이다.

3. DRE 3 Change 철학

DRE수학의 모든 수업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학생의 무슨 생각을 바꿔야, 수업 이후의 행동이 달라질까?”

DRE수학은
단순히 문제를 더 많이 풀게 하거나 설명을 더 자세히 하는 방식으로는
학생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해 왔다.

그래서 DRE수학은 수업의 목표를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에 두었다.

DRE수학이 말하는 수업의 변화는 다음 세 가지다.

1. 못한다는 ‘한계적인 생각’을 바꾼다
많은 학생들은 문제를 틀렸을 때

“나는 수학을 못해”라는 생각부터 한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학생은 문제 앞에서 멈추고,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DRE수학은 이 지점에 개입한다.
DRE수학의 수업에서는 틀린 이유를 물지 않는다.
대신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말하게 한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학생의 사고는 자기 비난에서 구조 인식으로 이동한다.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여기까지는 이해했고, 여기서 막혔다”로 바뀌는 순간,
학생은 다시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

2. 불안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꾼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학생일수록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평이 가득하다.

- 또 틀릴까 봐 불안하고
- 해도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 왜 나만 힘드냐는 생각에 빠진다.

DRE수학은

이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공부법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수업의 시작을 항상 **마음 정렬**로 연다.

바른 자세를 잡고,

“감사합니다”를 소리 내어 말하는

아주 짧은 루틴이지만, 이 과정은 학생의 집중 상태를 바꾼다.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시간에 머물게 만드는 것,

그것이 DRE수학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다.

3.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바꾼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DRE수학은 묻는다.

“그 열심이, 정말 실력을 만들고 있는가?”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공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복,

난이도만 높은 문제집에 집착하는 공부는 오히려 수학에 대한 좌절만 키운다.

DRE수학은 공부의 흐름을 바꾼다.

- 문제를 풀기 전에 진단하고
- 필수 개념과 예제를 통해 구조를 이해한 뒤
- 확인 문제로 스스로 적용해 본다.

이 흐름이 반복될 때

학생은 비로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DRE수학의 3 Change는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업이 끝난 이후의 학생 행동으로 확인된다.
이것이 DRE수학이 추구하는 변화이며, 모든 수업이 이 철학 위에서 설계되는 이유다.

4. 철학 → 수업 행동 변환표

DRE수학에서는

철학이 말로만 존재하는 순간
그 철학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 철학이라도
수업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DRE수학은

모든 철학을
교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 변환한다.
이 페이지는
DRE수학의 철학이 실제 수업 장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다.

1. “생각을 바꾼다” → 구조를 말하게 한다

학생이 문제를 틀렸을 때

DRE수학의 강사는
“왜 틀렸니?”라고 묻지 않는다.
이 질문은

학생을 사고 분석이 아닌

자기 평가로 끌고 간다.

대신 DRE수학에서는

다음 질문을 사용한다.

- “어디까지는 이해됐어?”
- “어디에서 막혔는지 말해볼래?”

이 질문은

학생의 생각을

비난에서 구조 인식으로 이동시킨다.

2. “마음을 바꾼다” → 수업 시작 루틴을 고정한다
마음은 설명으로 바뀌지 않는다.
행동이 바뀔 때 마음이 따라온다.

DRE수학은
수업 시작마다
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 바른 자세 잡기
- “감사합니다” 5번 적기
- 오늘 수업의 목표 한 문장 확인

이 짧은 과정은 학생을 불안에서 벗어나
학습 상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다.

3. “공부법을 바꾼다” → 문제 수를 줄인다

DRE수학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 수를 줄이고
각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말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DRE수학의 수업에서는

- 무작정 추가 문제를 주지 않는다
- 이해 없이 반복하게 하지 않는다

문제 수는 줄이고,
사고의 깊이는 늘린다.

4. “한계를 벗어나게 한다” → 부정 언어 즉시 개입

학생이
“이건 못 해요”

“저는 원래 안 돼요”라고 말하는 순간,
강사는 즉시 개입해야 한다.

이때 설명이나 설득은 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 질문을 던진다.

-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직 안 된 걸까?”
- “지금 필요한 건 개념일까, 연습일까?”

이 질문은

한계를 고정된 성질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바꾼다.

5. “부정적 생각을 제거한다” → 과정 언어만 사용한다

DRE수학에서는

결과 중심 언어를 최소화한다.

- “맞았다 / 틀렸다”
- “잘했다 / 못했다”

이런 말 대신

과정 언어를 사용한다.

- “여기까지는 논리가 맞아”
- “이 선택은 근거가 있어”
-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면 좋아지겠어”

이 언어 사용이 반복되면 학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

이 다섯 가지 행동 기준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모든 DRE수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운영 규칙이다.
교사가 이 기준을 지키는 순간,

그 수업은

개인의 스타일을 넘어 DRE수학의 수업이 된다.

5. DRE 교사의 역할 정의

DRE수학에서 교사는 수업의 중심이 아니다.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다.

따라서 DRE수학의 교사는 많이 아는 사람도,

잘 설명하는 사람도,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도 아니다.

DRE수학이 정의하는 교사는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 내는 코치다.

1. 설명자가 아니다

DRE수업에서

교사는 앞에 서서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을 많이 할수록 학생의 사고는 줄어든다.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만 늘어나면

그 수업은 결국 교사의 수업이 된다.

DRE교사는

설명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말하게 만든다.

2. 해결자가 아니다

학생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서 교사가 대신 풀어 주지 않는다.

대신 풀어 주는 순간 학생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구경한 것이 된다.

DRE교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여 주는 사람이다.

3. 판단자가 아니다

DRE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건 쉽지”

“이건 어려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판단 언어는 학생의 사고를 닫는다.

DRE교사는

옳고 그름을 판정하기보다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함께 본다.

4. 코치다

DRE교사의 핵심 역할은

질문, 기다림, 개입의 절제다.

- 질문한다
- 기다린다
-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한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학생의 사고는 성장한다.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5.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다

DRE교사는 자신만의 방식보다 시스템의 기준을 우선한다.

그날 수업이 잘 풀리지 않아도

- 수업 순서를 바꾸지 않고
- 질문 시점을 지키며
- 필수예제를 생략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학생을 위한 진짜 책임이다.

DRE교사의 역할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때 학생은 스스로 성장한다.

교사가 물려날수록 학생은 앞으로 나온다.

이것이 DRE수학이 정의하는 교사의 역할이다.

6. DRE 수업에서 금지되는 행동

DRE수학의 수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분명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행동이 수업 중 반복된다면

그 수업은 더 이상 DRE수업이 아니다.

이 항목들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금지 규칙이다.

1. 강의식 설명을 하지 않는다

DRE수업에서

교사가 앞에 서서 길게 설명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의식 설명은

학생의 사고를 단순화시키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고착시킨다.

설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론 수준으로만 제한한다.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수업의 중심은 학생에서 교사로 이동한다.

2. 판서 중심 수업을 하지 않는다

판서는

개념 구조를 보조하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수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판서가 많아질수록

학생은 필기자가 되고

사고는 멈춘다.

DRE수업에서

학생의 노트가 채워지는 이유는

교사의 판서를 옮겨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3. 문제를 대신 풀어 주지 않는다

학생이 문제를 못 풀 때

교사가 대신 풀어 주는 것은

가장 빠른 해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학생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된다.

DRE교사는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만 제시한다.

4. 즉각적인 힌트를 주지 않는다

문제를 푸는 도중

바로 힌트를 주는 행동은

학생의 사고 시간을 빼앗는다.

DRE수업에서는

학생이 충분히 고민하고

멈춰 설 때까지 기다린다.

힌트는

반드시

- 채점 이후
 - 풀이 공부 이후
- 제공한다.

5. 학생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DRE수업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학생이 더 많이 말하고,
교사는 더 많이 듣는다.

교사의 말이 길어질수록

학생의 사고는 줄어든다.

수업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교사라면

그 수업은 DRE수업이 아니다.

6. 결과 중심 평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았어 / 틀렸어”

“잘했어 / 못했어”

이런 언어는

학생을 결과에만 묶어 둔다.

DRE수업에서는

과정 언어만 사용한다.

- “이 단계까지는 논리가 맞아”
 - “이 선택은 근거가 있어”
 -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아질 수 있어”
-

이 금지 규칙들은

교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의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 규칙을 지키는 순간

수업은 자연스럽게

DRE수업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7. 수업 전 준비 체크리스트 (교사용)

DRE수학에서

수업의 질은 수업 시작 전에 이미 결정된다.

같은 학생, 같은 교재, 같은 시간이라도

수업 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업의 밀도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DRE수학은

교사의 순간 판단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수업 전 준비 항목을 명확한 체크리스트로 고정한다.

아래 항목은

모든 수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DRE수학의 기본 준비 기준이다.

1. 학생 수준 파악

수업 전, 반드시 학생의 수준을 분류한다.

- 하
- 중
- 상

이 분류는

점수나 학년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과 반응을 기준으로 한다.

- 하: 계산 실수가 잦고, 개념 용어에 불안함이 있음
- 중: 개념은 이해했으나 적용에서 자주 멈춤
- 상: 적용은 가능하나 실수·속도 문제 존재

학생 수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업 중 판단이 흔들리게 된다.

2. 개념서 선택

학생 수준에 맞는 개념서를 선택한다.

- 개념+유형 (기초·하위권)
- 개념원리 (중위권·표준)
- 정석 (상위권·심화)

DRE수학에서는

어려운 책을 쓰는 것이 실력이 아니다.

학생이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가장 좋은 교재다.

3. 일일 진도표 작성

모든 수업은

일일 진도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일일 진도표에는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일일테스트
- 오늘의 개념 범위
- 문제연습 1
- 문제연습 2
- 과제 범위

진도표가 없으면

수업은 즉흥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4. 일일테스트 준비

일일테스트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 준비됨
- 오늘은 생략 (사유 명시)

일일테스트는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수업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다.

5. 유사문제·프린트 준비
수준별 유사문제는
수업 중 즉흥적으로 고르지 않는다.

- 하 수준
- 중 수준
- 상 수준

미리 준비된 문제만 사용함으로써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6.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위험성
수업 전 준비가 부족하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하게 된다.

- 설명이 길어진다
- 문제를 대신 풀어준다
- 수업 순서를 바꾸게 된다

이 순간
수업은 DRE수업에서 벗어난다.

수업 전 준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한 뒤에
수업을 시작할 때,
그 수업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8. 학생 수준 분류 기준 (하 · 중 · 상)

DRE수학에서 학생의 수준을 분류하는 목적은 학생을 서열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학생에게 맞는 지도 방식과 문제 난이도를 정확히 선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DRE수학의 수준 분류는 점수나 학년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사고 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1. 하 수준 학생의 특징

하 수준 학생은 문제 앞에서 오래 고민하기보다 바로 멈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개념을 모른다기보다 개념을 불안해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계산 실수가 잦다
- 개념 용어를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
- 문제를 읽자마자 “모르겠어요”라고 말한다
- 풀이를 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 유형의 학생에게는 문제 수를 줄이고, 성공 경험을 빠르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중 수준 학생의 특징

중 수준 학생은 개념 설명을 들으면 “아, 이건 알겠어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문제를 풀면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념은 이해했으나 적용이 느리다
- 조건을 끝까지 읽지 않는 실수가 있다
- 풀이 방향은 맞지만 정리가 부족하다
-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지만, 혼자서는 불안해한다

이 유형의 학생에게는

필수예제를 중심으로

개념 → 적용의 연결 구조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3. 상 수준 학생의 특징

상 수준 학생은

문제를 끝까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러나

실수나 속도 문제로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념을 빠르게 이해한다
- 풀이 방향 설정이 빠르다
- 실수로 감점이 잦다
- 본인의 풀이를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학생에게는

문제 난이도를 무작정 높이기보다

조건 변화, 구조 비교, 사고 점검이 중요하다.

4. 수준 분류 시 주의사항

학생의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단원에 따라

하 → 중,

중 → 상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수준 분류는

수업마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 학생은 하위권이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지금 이 단원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한다.

5. 수준 분류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

수준 분류가 명확하면

교사는 다음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 필수예제 선택
- 확인문제 난이도
- 유사문제 개수
- 과제 분량

반대로

수준 분류가 흐릿하면

수업은 즉흥적으로 흘러가고

교사는 설명에 의존하게 된다.

학생 수준 분류는

수업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라

수업을 정확하게 만드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명확할수록

DRE수업은 흔들리지 않는다.

9. DRE 수업 전체 흐름 개요

DRE수학의 수업은

교사의 판단이나 학생의 반응에 따라
즉흥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DRE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흐름을 가진다.

이 흐름은

수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가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최적의 순서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다.

DRE 수업 10단계 고정 흐름

DRE수학의 모든 수업은

아래의 10단계를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한다.

1. 입실
2. 태도 세팅
3. 진단
4. 개념 학습
5. 개념확인 문제
6. 필수예제
7. 확인문제
8. 유사문제
9. 오답 정리
10. 과제 제시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생략되거나

순서가 바뀌면

수업의 중심이 무너진다.

왜 이 순서인가

이 10단계는

‘가르치기 좋은 순서’가 아니라
학생이 이해하기 좋은 순서다.

- 입실과 태도 세팅은
학생의 마음 상태를 정렬한다.
- 진단은
오늘 수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 개념 학습과 개념확인 문제는
이해의 기초를 만든다.
- 필수예제와 확인문제는
사고 구조 확인 단계다.
- 유사문제는
적용 범위를 넓힌다.
- 오답 정리와 과제 제시는
수업을 다음 시간으로 연결한다.

흐름이 중요한 이유
흐름이 고정되어 있으면
교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 설명이 줄어들고
- 질문이 명확해지며
- 수업이 안정된다.

학생 또한
매 수업마다
같은 구조를 경험하며
수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된다.

흐름을 지켜야 하는 이유
수업 중에
학생이 어려워하거나
진도가 늦어진다고 해서

임의로 단계를 건너뛰면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설명 증가 →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
DRE수학에서는
수업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흐름을 더 철저히 지킨다.

이 페이지의 역할
이 페이지는
DRE수업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게 하는
지도(map)다.
이후 페이지에서는
각 단계를 하나씩 분해하여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10. 입실 · 태도 세팅 (수업의 시작을 결정하는 3분)

DRE수학에서 수업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학생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그날 수업의 집중도와 흐름은 결정된다.
그래서 DRE수학은
입실과 태도 세팅을 수업의 첫 단계로 고정한다.
이 단계는
짧지만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되는 과정이다.

1. 입실 단계
학생이 교실에 들어오면
교사는 반드시 인사를 유도한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수업에 들어왔다는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다.
표준 멘트 예시
“들어오면 인사부터 하자.”
“수업 시작할 준비가 되면 인사하자.”
학생이 인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

2. 자세 정렬
인사 후
바로 자세를 잡는다.

- 허리 세우기
- 의자 깊숙이 앉기
- 책상 위 불필요한 물건 정리

표준 멘트 예시
“허리 세우고, 몸부터 준비하자.”
“자세가 공부의 시작이야.”

이 과정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준비다.

3. 감사 루틴 (감사 5회)
자세가 정리되면
학생에게 소리 내어 말하게 한다.
“감사합니다”를
5번 연속으로 말하게 한다.
이때 교사는
그 의미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감사는
설명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익숙해지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이 짧은 루틴은
학생의 마음 상태를
불안 → 안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오늘의 목표 한 문장
감사 루틴 이후
오늘 수업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표준 멘트 예시
“오늘은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목표야.”
“오늘은 이 개념을 혼자 설명할 수 있으면 성공이야.”
목표는
구체적이되
부담스럽지 않게 설정한다.

5. 태도 세팅의 의미
이 3분은
시간을 낭비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수업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집중이 자주 깨진다
- 질문이 산만해진다
- 문제를 대충 풀게 된다

태도 세팅은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수업의 안전장치다.

6. 교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 태도 세팅은 매 수업 동일하게 진행한다
- 학생 반응에 따라 생략하지 않는다
-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는다

차분하고 일정하게 진행할수록

학생은 수업 구조에 익숙해진다.

입실과 태도 세팅이 끝난 순간,

학생은 이미

“공부 모드”에 들어와 있다.

이제 수업은

자연스럽게

진단 단계로 이어진다.

11. 진단 단계의 철학

DRE수학에서 진단은
수업의 시작이자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이 진단은
시험을 보거나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DRE수학이 말하는 진단은
학생을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찾는 과정이다.

1. 진단은 ‘확인’이 아니라 ‘관찰’이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문제를 풀게 한 뒤
맞고 틀림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DRE수학에서는
정답 여부보다
학생의 사고 흐름을 관찰한다.

- 어디에서 멈추는가
- 무엇을 고민하는가
- 계산에서 막히는가, 개념에서 막히는가
- 조건을 끝까지 읽는가

이 관찰이
오늘 수업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된다.

2. 진단 단계에서 교사는 설명하지 않는다

진단 중에
교사가 개입하거나 설명하는 순간,
학생의 실제 상태는 가려진다.
그래서 DRE수학에서는
진단 단계에서 다음을 철저히 지킨다.

- 문제 풀이 중 개입하지 않는다

- 힌트를 주지 않는다
- 풀이 방향을 암시하지 않는다

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조용히 관찰만 한다.

3. 틀린 문제보다 ‘멈춘 지점’을 본다
학생이 틀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멈췄는지다.

- 식을 세우지 못했는가
- 개념 선택을 못했는가
- 계산에서 멈췄는가

이 지점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핵심이다.

4. 진단은 수업의 방향을 정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오늘 수업의 초점은 달라진다.

- 개념 보완이 필요한지
- 필수예제를 충분히 다뤄야 하는지
- 문제 수를 줄여야 하는지

진단 없이 시작한 수업은
방향 없는 설명으로 흘러가기 쉽다.

5. 진단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
진단 단계에서
교사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학생이 오래 멈춰 있어도
기다린다.

이 시간은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6. 진단이 잘 되면 수업은 쉬워진다

진단이 정확하면

수업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반대로

진단이 부실하면

교사는 설명을 늘릴 수밖에 없고,

학생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한다.

DRE수학에서

진단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수업의 출발점이다.

12. 일일테스트 운영 매뉴얼

일일테스트는

DRE수학 수업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단계 중 하나다.

많은 수업에서

테스트는 점수를 매기거나

학생을 긴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나 DRE수학에서

일일테스트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

1. 일일테스트의 목적

DRE수학의 일일테스트는

시험이 아니다.

일일테스트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다.

1.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2. 오늘 수업의 초점을 명확히 설정한다.
3. 오답 유형을 통해 지도 방향을 결정한다.

점수는 참고 자료일 뿐

지도 기준이 아니다.

2. 일일테스트 구성 원칙

일일테스트는

다음 기준을 반드시 따른다.

- 전 수업 내용 또는 직전 단원 중심
- 난이도는 중하 수준
- 문제 수는 과하지 않게

문제 수가 많아질수록

관찰이 아닌 평가로 흐르기 쉽다.

3. 테스트 중 교사의 행동 기준

일일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다음을 반드시 지킨다.

- 설명하지 않는다
- 힌트를 주지 않는다
- 풀이 과정을 묻지 않는다

교사는
교실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학생의 반응을 관찰한다.

4. 관찰해야 할 핵심 포인트

교사는
다음 항목을 집중적으로 본다.

- 문제를 읽는 속도
- 식을 세우는 지점
- 계산에서의 멈춤 여부
- 중간에 포기하는지 여부

이 관찰 결과가
이후 수업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된다.

5. 채점과 지도 시점

일일테스트는
반드시 풀이 종료 후 채점한다.

문제 풀이 중
채점하거나 설명하는 행동은
진단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채점 이후에만
오답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6. 일일테스트 결과 활용법

일일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개념 학습 비중 조절
- 필수예제 선택 기준 설정
- 확인문제 난이도 조정

점수에 집착하지 않고

패턴을 읽는 것이 핵심이다.

7. 일일테스트를 대하는 태도

교사는

일일테스트 결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잘 봤다고 과도하게 칭찬하지도,

못 봤다고 압박하지도 않는다.

일일테스트는

오늘 수업을 위한

자료일 뿐이다.

일일테스트가 끝났다면

이제 수업은

개념 학습 단계로 이어진다.

13. 개념 학습 단계의 원칙

DRE수학에서 개념 학습은
교사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다.
개념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말로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업은 다시 설명 중심으로 돌아가고,
학생은 사고하지 않는 학습자가 된다.

1. 개념은 ‘전달’이 아니라 ‘구조 인식’이다

많은 수업에서
개념은 교사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그렇게 배운 개념은
문제 앞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DRE수학은
개념을 암기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구조로 다룬다.
그래서 개념 학습 단계에서
교사는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2. 개념 학습의 기본 순서

개념 학습은
반드시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학생이 개념서를 직접 읽는다
2. 중요한 문장을 표시한다
3. 노트에 자신의 말로 정리한다
4. 교사가 질문으로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개념 학습의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다.

3. 교사의 설명은 언제 필요한가

DRE수학에서

교사의 설명은 금지된 것이 아니다.

다만

설명은 ‘보조 수단’일 뿐, 중심이 아니다.

설명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이 개념의 핵심 문장을 찾지 못할 때
- 개념의 큰 틀을 잡아 줄 필요가 있을 때
- 오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이때도

설명은 짧고 구조 중심으로 한다.

4. 개념 학습 단계에서의 질문 원칙

교사는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한다.

-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뭐야?”
- “이 개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안 풀릴까?”
-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생각을 말하게 하는 질문을 사용한다.

5. 개념 학습에서 주의할 점

개념 학습 단계에서

다음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설명하기
- 학생이 읽기 전에 설명부터 시작하기
- 이해 확인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개념 학습이 부실하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설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6. 개념 학습이 잘 되었다는 신호

개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

- 학생이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문제를 보기 전에 개념을 떠올린다
- 풀이 과정에서 개념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수업은

개념확인 문제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개념 학습은

시간을 줄여야 할 단계가 아니라

수업의 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다.

14. 개념 학습 질문 템플릿

(설명 대신 질문으로 지도하는 법)

DRE수학에서

개념 학습의 질문은

교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설명은

학생의 이해를 대신 만들어 주지만,

질문은

학생의 이해를 끌어낸다.

이 페이지는

개념 학습 단계에서

교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질문 템플릿을 정리한 것이다.

1. 핵심 문장 찾기 질문

개념서를 읽은 직후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뭐야?”
- “이 페이지에서 한 문장만 남긴다면?”
- “이 문장이 핵심인 이유는 뭐야?”

이 질문을 통해

학생은 개념을

‘많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문장으로 정리하게 된다.

2. 필요성 인식 질문

개념을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로 인식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 “이 개념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안 풀릴까?”
- “이 개념은 언제 등장할까?”
- “이 개념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 질문을 받은 학생은
개념을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3. 구조 파악 질문
개념의 내부 구조를
스스로 정리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 “이 개념은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을까?”
- “앞에서 배운 개념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 “이 개념의 시작과 끝은 어디야?”

이 질문은
학생이 개념을
덩어리로 이해하도록 돋는다.

4. 오해 점검 질문
개념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은
조기에 잡아내는 질문이다.

- “이 개념을 잘못 쓰면 어떤 실수가 나올까?”
- “이 개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
-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단순 암기를
사고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5. 말로 설명하게 하는 질문
개념 학습의 핵심은
학생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 “이 개념을 네 말로 설명해 볼래?”
- “친구한테 설명한다면 뭐라고 할까?”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6. 질문 사용 시 주의사항

질문을 던질 때

교사는 다음을 반드시 지킨다.

- 답을 유도하지 않는다
- 바로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
-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침묵이 흐를 때

교사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 기다림이

학생의 사고를 만든다.

7. 질문이 잘 작동하는 신호

질문이 제대로 작동하면

학생에게 다음 변화가 나타난다.

- 개념 설명 시간이 짧아진다
- 문제 접근 속도가 빨라진다
- 질문 없이도 개념을 떠올린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수업은

개념확인 문제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DRE수학에서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수업의 중심 도구다.

15. 개념확인 문제 운영 기준

(이해를 ‘적용’으로 옮기는 첫 단계)

개념확인 문제는

개념 학습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다.

개념확인 문제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개념은 설명으로만 남고

문제 풀이로 이어지지 않는다.

1. 개념확인 문제의 목적

개념확인 문제의 목적은 단순하다.

학생이 방금 학습한 개념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2. 문제 선택 기준

개념확인 문제는

다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방금 학습한 개념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문제
- 풀이 단계가 짧은 문제
- 계산 부담이 크지 않은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확인이 아니라 좌절이 된다.

3. 개념확인 문제 진행 방법

개념확인 문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학생이 혼자 푼다

2.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게 한다
3. 교사는 개념 사용 여부만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풀이를 대신 설명하지 않는다.

4. 점수 기준의 의미

DRE수학에서는

개념확인 문제에

70점 기준을 적용한다.

- 70점 이상: 다음 단계로 이동
- 70점 미만: 즉시 오답 정리

이 기준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수업 선택을 위한 기준이다.

5. 70점 미만일 때의 대응

개념확인 문제에서

70점 미만이 나왔다면

교사는 다음을 점검한다.

- 개념 이해가 부족한가
- 개념을 문제에 연결하지 못하는가
- 문제 해석에서 막히는가

이 경우

바로 문제를 더 풀리지 않는다.

반드시

개념 또는 필수예제로 돌아간다.

6. 개념확인 문제에서의 질문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만 사용한다.

-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썼어?”

- “이 단계에서 그 개념이 왜 필요했을까?”
- “다른 개념으로도 풀 수 있을까?”

정답보다

개념 사용의 이유를 묻는다.

7. 개념확인 문제가 끝났다는 신호

다음 신호가 보이면

개념확인 단계는 성공이다.

- 학생이 개념을 말로 설명한다
- 문제를 푸는 동안 개념을 먼저 떠올린다
- 풀이가 짧아진다

이 상태가 되면

수업은 자연스럽게

필수예제 단계로 넘어간다.

개념확인 문제는

수업의 속도를 늦추는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이 단계를 탄탄히 할수록

이후 수업은 훨씬 빨라진다.

16. 필수예제의 중요성

(DRE수업의 핵심이 작동하는 지점)

DRE수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계를 꼽으라면

단연 필수예제다.

필수예제는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도 아니다.

필수예제는

사고의 구조를 만드는 단계다.

1. 필수예제는 왜 필요한가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했다고 말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다시 멈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중간 다리’가 없기 때문이다.

필수예제는

개념과 문제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없으면

학생은

개념을 배웠음에도

문제를 풀지 못한다.

2. 필수예제의 본질

DRE수학에서

필수예제는

‘푸는 문제’가 아니다.

필수예제는

풀이를 공부하는 문제다.

이 말의 의미를

교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학생이 혼자 풀도록 방치하거나

정답을 맞혔는지 확인하는 순간

필수예제의 역할은 사라진다.

3. 왜 ‘풀이를 공부’해야 하는가

풀이에는

다음 요소들이 모두 담겨 있다.

- 어떤 개념을 선택했는가
- 왜 그 개념을 사용했는가
- 이 순서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가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이해할 때

학생의 사고 구조가 형성된다.

문제만 푸는 학습으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4. 필수예제에서 교사의 역할

필수예제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명확하다.

-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
- 답을 맞혔는지에 집착하지 않는다
- 풀이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

대신

- “왜 이 개념을 선택했을까?”
- “이 단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 “여기서 다른 선택도 가능할까?”

이런 질문으로

학생의 사고를 따라간다.

5. 필수예제가 수업의 질을 결정한다

필수예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후 단계는 놀라울 정도로 쉬워진다.

- 확인문제 성공률이 높아진다
- 유사문제에서 설명이 줄어든다
- 학생이 스스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필수예제를 대충 넘기면

수업 전체가 흔들린다.

설명이 늘어나고,

문제 수가 늘어나고,

학생은 다시 수동적으로 변한다.

6. 필수예제를 생략하면 생기는 문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예제를 줄이거나 생략하면

단기적으로는 진도가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음 수업에서 바로 드러난다.

-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 같은 실수가 계속 나온다
- 설명이 점점 길어진다

필수예제는

시간을 잡아먹는 단계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해 주는 단계다.

7. 교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

필수예제를 건너뛰는 순간,

DRE수업은 성립하지 않는다.

필수예제는

선택이 아니다.

DRE수업의 정체성 그 자체다.

17. 필수예제 지도 방법

(풀이를 ‘공부’시키는 실제 실행 매뉴얼)

필수예제는

DRE수업의 심장이다.

그러나 필수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교사들이 그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는

필수예제를 지도할 때

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실행 기준과 실제 멘트를 정리한 것이다.

1. 필수예제 시작 멘트 (고정)

필수예제를 시작할 때

교사는 반드시 다음 멘트를 사용한다.

“이 문제는 풀지 말고, 풀이를 공부하자.”

이 한 문장은

학생의 태도를

‘정답 찾기’에서

‘사고 구조 이해’로 전환시킨다.

2. 학생의 첫 행동

필수예제 단계에서

학생은 다음 행동을 한다.

- 문제를 읽는다
- 바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
- 풀이를 한 줄씩 따라 적는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즉시 제지한다.

3. 풀이 따라 적기의 목적

풀이를 따라 적는 이유는
단순 필기가 아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 풀이의 순서를 눈으로 확인하고
- 개념이 사용된 위치를 인식하고
- 사고의 흐름을 몸으로 익히는 것

풀이를 따라 적으며
학생은 자연스럽게
“왜 이 단계가 먼저 나왔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4. 교사가 던지는 핵심 질문

풀이를 따라 적는 동안
교사는 다음 질문만 사용한다.

- “여기서 왜 이 개념을 썼을까?”
- “이 단계가 없으면 다음이 가능할까?”
- “이 선택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풀이를 해제하고
다시 조립하게 만든다.

5. 학생에게 반드시 말하게 할 것

필수예제 지도 중
교사는 학생에게 반드시
다음 내용을 말하게 해야 한다.

- 지금 사용한 개념 이름
- 그 개념을 선택한 이유
- 다음 단계로 넘어간 근거

학생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필수예제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6.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필수예제 단계에서

다음 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풀이를 대신 설명하는 것
- “이건 이렇게 외워”라고 말하는 것
-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려는 것

이 행동들은

필수예제의 목적을 무너뜨린다.

7. 필수예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

다음 신호가 나타나면

필수예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 학생이 질문 없이 풀이를 따라간다
- 개념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 다음 단계 예측을 시도한다

이 상태가 되면

수업은 자연스럽게

확인문제 단계로 이어진다.

필수예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가 아니다.

필수예제를 제대로 하면

이후 모든 단계의 시간이 줄어든다.

18. 확인문제 단계 운영 기준

(스스로 풀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

확인문제는

필수예제가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다.

확인문제는

필수예제를 통해 만든 사고 구조가

학생 혼자서도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은 처음으로

“이건 내가 풀 수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된다.

1. 확인문제의 목적

확인문제의 목적은 단 하나다.

필수예제에서 학습한 사고 흐름을

학생 스스로 재현하게 하는 것

정답을 맞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풀이 과정을

혼자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2. 확인문제의 위치

확인문제는

반드시 필수예제 직후에 진행한다.

- 개념 학습 뒤 바로 X
- 유사문제 여러 개 뒤 X

필수예제와 확인문제 사이에

다른 활동이 끼어들면

사고 흐름은 쉽게 끊어진다.

3. 문제 선택 기준

확인문제는

다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필수예제와 구조가 거의 동일한 문제
- 숫자나 조건만 살짝 바뀐 문제
- 풀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확인문제가 아니다.

4. 진행 방법

확인문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학생이 혼자 푸다
2. 교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3. 풀이가 끝난 뒤 설명을 요구한다

풀이 중에는

어떤 힌트도 제공하지 않는다.

5. 막힐 때의 대응 원칙

학생이 확인문제에서 막히면

교사는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반드시 필수예제로 되돌아간다.

표준 멘트 예시

“이 문제랑 필수예제랑 뭐가 비슷해?”

“아까 그 풀이에서 어떤 단계가 떠오를까?”

확인문제는

새로 가르치는 단계가 아니라

되돌아보는 단계다.

6. 확인문제 성공의 기준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확인문제는 성공이다.

- 풀이를 끝까지 완성했다
- 개념 선택 이유를 말로 설명했다
- 필수예제와의 연결을 인식했다

계산 실수는

이 단계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7. 확인문제가 주는 효과

확인문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학생에게 다음 변화가 나타난다.

-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 다음 문제를 스스로 시도한다
- 질문의 질이 달라진다

이 변화가 보이면

이제 수업은

유사문제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확인문제는

짧지만 매우 강력한 단계다.

이 한 문제가

학생의 자신감과

다음 학습 태도를 결정한다.

19. 유사문제 선택 기준

(연습의 양이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

유사문제 단계는

연습량을 늘리는 단계가 아니다.

유사문제의 목적은

필수예제와 확인문제에서 형성된 사고 구조를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문제를 잘못 선택하면

수업은 곧바로 설명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1. 유사문제 단계의 역할

유사문제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한다.

1. 학생이 사고 구조를 유지하는가
2. 조건이 조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가

따라서

유사문제는 많을 필요가 없다.

선택이 정확해야 한다.

2. 유사문제와 확인문제의 차이

확인문제가

“같은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는 문제”라면,

유사문제는

“구조는 같지만 표면이 다른 문제”다.

- 조건의 표현이 바뀐다
- 수치가 달라진다
- 문제 문장이 길어진다

그러나

풀이의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해야 한다.

3. 학생 수준별 문제 선택 기준

유사문제는

학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선택한다.

하 수준 학생

- 확인문제보다 쉬운 문제
- 구조가 더 단순한 문제
- 성공 확률이 높은 문제

중 수준 학생

- 확인문제와 동일한 난이도
- 조건 표현이 달라진 문제
- 사고 흐름 점검 중심

상 수준 학생

- 난이도는 약간 상승
- 조건이 추가되거나 바뀐 문제
- 구조 비교가 필요한 문제

4. 유사문제 개수 기준

DRE수학에서는

유사문제를 많이 풀리지 않는다.

권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 1~2문제
- 중: 2~3문제
- 상: 3~4문제

문제 수가 늘어날수록

집중력은 떨어지고

설명 요구는 늘어난다.

5. 유사문제 진행 중 교사의 역할

유사문제 단계에서

교사는 다음을 지킨다.

- 풀이 중 개입하지 않는다

- 바로 설명하지 않는다
- 사고 흐름만 관찰한다

필요한 개입은
문제가 끝난 뒤에만 한다.

6. 잘못된 유사문제 선택의 신호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 학생이 처음부터 포기한다
- 필수예제와 연결하지 못한다
- 질문이 폭증한다

이 경우
즉시 문제를 바꾸거나
단계를 되돌린다.

7. 유사문제 단계의 종료 신호

다음 신호가 보이면
유사문제 단계는 충분하다.

- 학생이 스스로 접근을 시도한다
- 풀이 방향을 말로 설명한다
- 실수의 원인을 스스로 짚는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수업은
오답 정리 단계로 넘어간다.

유사문제는
실력을 키우는 단계이기 전에
실력을 확인하는 단계다.
문제 수를 늘리는 순간
이 단계의 목적은 사라진다.

20. 오답 정리 원칙

(틀린 문제를 실력으로 바꾸는 단계)

DRE수학에서

오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답은

학생의 사고가 어디에서 흔들렸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데이터다.

따라서 DRE수학의 오답 정리는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시간이 아니라,
사고를 교정하는 시간이다.

1. 오답 정리의 목적

오답 정리의 목적은

정답을 다시 맞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정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다.

1. 어디에서 사고가 끊어졌는지 확인한다
2.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명확히 한다
3.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정리한다

이 세 가지가 남지 않으면

오답 정리는 의미가 없다.

2. 오답 정리는 즉시 진행한다

DRE수학에서는

오답을 미루지 않는다.

- “집에서 다시 풀어와” X
- “다음 시간에 보자” X

오답은

기억이 생생할 때 다뤄야

사고 교정이 가능하다.

문제를 푼 직후,
또는 그날 수업 안에서
반드시 정리한다.

3. 오답 정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3줄
모든 오답에는
아래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왜 틀렸는지

- 계산 실수인가?
- 개념 선택 오류인가?
- 문제 해석 오류인가?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 개념 자체 미이해
- 개념은 알지만 적용 실패
- 개념 선택 순서 문제

다음엔 어떻게 할지

- 어떤 질문을 먼저 할지
- 어떤 개념을 먼저 떠올릴지
- 어떤 실수를 조심할지

이 세 줄이 빠진 오답은
다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교사가 던지는 오답 질문
오답 정리 단계에서
교사는 다음 질문만 사용한다.

- “이 문제에서 처음 잘못된 선택은 어디였을까?”
- “이때 어떤 개념을 떠올렸어야 했을까?”
- “다음에 이 유형을 만나면 첫 질문은 뭐가 될까?”

정답을 알려 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5. 오답 정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음 행동은

오답 정리의 효과를 무너뜨린다.

- 같은 문제를 다시 풀게 하는 것
- 풀이를 그대로 베끼게 하는 것
- “이건 실수니까 넘어가자”라고 말하는 것

실수 역시

사고의 결과다.

그 원인을 짚지 않으면

반복된다.

6. 오답 정리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

다음 변화가 나타나면

오답 정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 학생이 스스로 실수 원인을 말한다
- 같은 유형에서 실수가 줄어든다
- 문제 접근 질문이 달라진다

이 상태가 되면

오답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7. 오답 정리의 위치

오답 정리는

수업의 끝이 아니다.

오답 정리는

다음 수업의 시작점이다.

오늘의 오답 기록은
다음 시간
진단과 과제 설계의 기준이 된다.

DRE수학에서
오답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이다.
오답을 제대로 다루는 순간,
학생의 실력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한다.

21. 과제 설계 원칙

(수업 이후 학습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

DRE수학에서 과제는

수업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다.

과제는

수업에서 만들어진 사고 구조를

수업 밖에서도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다.

과제를 잘못 설계하면

수업에서 쌓은 이해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1. 과제의 목적

DRE수학의 과제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1. 수업에서 다룬 개념과 사고 흐름을 반복한다
2. 학생 혼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경험을 늘린다
3. 다음 수업의 진단 자료를 만든다

과제는

실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력을 유지·강화하는 도구다.

2. 과제 설계의 기본 원칙

과제는

다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생이 혼자 풀 수 있는 난이도
- 수업에서 다룬 구조와 동일한 문제
- 반복 가능하고 부담되지 않는 양

“많이 하면 는다”는 생각은

DRE수학에 존재하지 않는다.

3. 수준별 과제 분량 기준

학생 수준에 따라

과제 분량을 명확히 조절한다.

- **하 수준:** 20~30문제
- **중 수준:** 30~40문제
- **상 수준:** 40~50문제

이 기준은

‘해야 할 최소량’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상한선이다.

4. 과제 문제 선택 기준

과제 문제는

다음 기준으로 선택한다.

- 확인문제·유사문제와 구조가 같은 문제
- 필수예제에서 다른 개념이 반복되는 문제
- 조건만 바뀐 문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과제로 주지 않는다.

5. 과제를 줄여야 하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과제 분량을 즉시 줄인다.

- 학생이 수업에서 많이 지쳤을 때
- 오답 비율이 높은 날
- 개념 이해가 아직 불안할 때

과제는

학생의 자신감을 유지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

6. 과제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

교사는

과제를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이건 다 해와야 해” ×
- “못 하면 다음 수업 못 나가” ×

대신

과제를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 자료로 안내한다.

7. 과제의 활용

과제 결과는

다음 수업에서 반드시 활용한다.

- 일일테스트 구성
- 오답 유형 확인
- 다음 진도 조정

과제가 수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학생은 과제를 의미 없는 일로 인식하게 된다.

DRE수학에서

과제는 양이 아니라

방향과 연결이 중요하다.

과제가 잘 설계될수록

다음 수업은 더 쉬워진다.

22. 질문 받는 법 표준 매뉴얼

(질문을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허용할 것인가)

DRE수학에서는

질문을 많이 받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수업의 질을 결정한다고 본다.

질문을 잘못 받으면

학생의 사고는 멈추고,

수업은 설명 중심으로 되돌아간다.

1. 질문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

학생이 문제를 푸는 도중에 던지는 질문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태다.

- “이거 어떻게 해요?”
- “다음에 뭐 해요?”
- “이 공식 쓰는 거 맞아요?”

이 질문들은

사고를 확장하기보다

사고를 교사에게 넘기는 질문이다.

DRE수학은

이 흐름을 차단한다.

2. 질문 허용 시점 (고정 규칙)

DRE수학에서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정해 놓는다.

단계	질문 허용
문제 푸는 중	×
채점 전	×
풀이 공부 후	○
정리 질문	○

이 규칙은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문제 푸는 중 질문을 막는 이유

문제를 푸는 중에 질문을 허용하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갖게 된다.

- 혼자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 막히면 바로 도움을 요청한다
- 사고의 책임을 내려놓는다

DRE수학은
이 습관을 끊기 위해
문제 푸는 중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질문을 받을 때의 교사 태도

질문을 받을 때
교사는 즉시 설명하지 않는다.

먼저

다음 질문으로 되돌려 준다.

- “어디까지는 이해했어?”
- “이 문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건 뭐야?”
- “필수예제랑 연결되는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
사고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

5.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구분

좋은 질문

- “이 단계에서 왜 이 개념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뭐가 맞는지 헷갈려요.”

나쁜 질문

- “이거 답 뭐예요?”
-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교사는

질문의 질을 기준으로
개입의 깊이를 조절한다.

6. 질문이 많아질 때 점검할 것

질문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다음 항목을 점검한다.

- 필수예제가 충분했는가
- 확인문제가 적절했는가
- 유사문제가 너무 어려웠는가

질문이 많다는 것은
대개 앞 단계가 흔들렸다는 신호다.

7. 질문 통제의 궁극적 목적

질문을 통제하는 이유는
학생을 답답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다.

학생이 혼자서
끝까지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시간이 누적될수록
학생은 점점
질문 없이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DRE수학에서
질문은 환영받아야 하지만,
무작위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질문을 관리하는 순간
수업은 다시
학생 중심으로 돌아온다.

23. 설명의 언어 규칙

(결과를 말하지 말고, 과정을 말하라)

DRE수학에서
교사의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다.

교사의 말은
학생의 사고 방향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도구다.

같은 설명이라도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학생의 사고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1. 결과 언어를 금지하는 이유
다음과 같은 말은
학생의 사고를 즉시 멈추게 만든다.

- “이건 이렇게 풀면 돼.”
- “답은 이거야.”
- “이렇게 외워.”

이 언어들은
학생에게 메시지를 준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DRE수학에서는
이 메시지를 차단한다.

2. 과정 언어의 원칙
DRE수학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반드시 과정 중심이어야 한다.
과정 언어는
다음 질문으로 구성된다.

- “왜 이 선택을 했을까?”
- “이 다음에 가능한 선택은?”
- “이 단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언어는
학생의 사고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3. 금지 언어 vs 권장 언어

금지 언어	권장 언어
이건 쉬운 문제야	어떤 부분이 쉬워 보일까?
이건 자주 나와	어떤 구조가 반복될까?
그냥 이렇게 해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답은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4. 설명이 필요한 순간의 언어 규칙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도
교사는 다음 원칙을 지킨다.

-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 공식부터 말하지 않는다
- 구조 → 이유 → 적용 순서로 말한다

설명은
'정답 전달'이 아니라
사고 방향 제시여야 한다.

5. 학생의 말을 다루는 방식

학생이 틀린 말을 했을 때
교사는 바로 수정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그 선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틀린 말도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과정으로 존중한다.

6. 언어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

교사의 언어가
제대로 작동하면
학생에게 다음 변화가 나타난다.

- 답보다 과정을 먼저 말한다
- 설명 없이도 접근을 시도한다
- 실수를 스스로 인식한다

이 변화는

수업의 질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다.

7. 교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

학생의 사고는
교사의 언어가 허용하는 만큼만 자란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수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24. DRE 사고 프레임 적용법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거치는 3단계 사고 구조)

DRE수학에서

문제 해결 능력은

센스나 직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순서로 생각하느냐가 전부다.

DRE 사고 프레임은

모든 문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사고 순서다.

1. DRE 사고 프레임이란

DRE는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된다.

- D (Direction): 무엇을 구하는가
- R (Reveal): 이미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 E (Employ): 어떤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순서를

문제마다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

DRE수학의 핵심이다.

2. D 단계 - Direction (방향 설정)

문제를 풀기 전에

학생은 반드시

구하는 대상을 말로 정리해야 한다.

표준 질문

-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값은?”

이 단계를 생략하면

학생은 계산부터 시작하고

사고는 쉽게 흔들린다.

3. R 단계 - Reveal (정보 드러내기)

다음으로

문제에서 이미 주어진 정보를
하나씩 꺼낸다.

표준 질문

- “이미 주어진 조건은 뭐야?”
- “숫자 말고 말로 주어진 조건은?”

이 단계에서

학생은 문제를
‘읽는 대상’에서
‘정리하는 대상’으로 바꾸게 된다.

4. E 단계 - Employ (개념 선택)

마지막으로

주어진 정보와 구하는 것을 연결할
개념을 선택한다.

표준 질문

-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은?”
- “아까 배운 개념 중 뭐가 떠오를까?”

여기서

공식이 아니라
개념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한다.

5. DRE 순서를 어기면 생기는 문제

다음과 같은 학생 반응은

대부분 DRE 순서가 깨졌다는 신호다.

- 식부터 세운다
- 계산을 하다 멈춘다
- 왜 이 공식을 쓰는지 설명 못 한다

이때 교사는

풀이를 설명하지 않고
DRE 질문으로 되돌린다.

6. DRE 프레임을 습관화하는 방법

교사는

문제를 풀 때마다

이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문제를 보자마자 D 질문
- 조건 정리할 때 R 질문
- 풀이 시작 전 E 질문

이 반복이 쌓이면

학생은

질문 없이도

이 순서를 자동으로 떠올리게 된다.

7. 교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공식을 많이 아는 학생이 아니라,

질문 순서가 정리된 학생이다.

DRE 사고 프레임은

문제 풀이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습관이다.

25. 신입 교사용 수업 점검표

(오늘 수업이 DRE였는지 확인하는 기준)

DRE수학 수업은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수업이 잘된 것 같은 느낌과

DRE수업이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페이지는

수업 직후

교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 기준표다.

1. 수업 구조 점검

아래 질문에

정직하게 O / X로 표시한다.

- 입실·태도 세팅을 생략하지 않았는가
- 진단 없이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 수업 흐름(10단계)을 끝까지 지켰는가

3개 중

하나라도 X라면

오늘 수업은 DRE가 아니다.

2. 설명 사용 점검

다음 항목을 점검한다.

- 개념을 대신 설명하지 않았는가
- 문제 풀이 중 설명을 끼워 넣지 않았는가
- 정답을 먼저 말하지 않았는가

설명이 늘어났다면

어딘가 앞 단계가 흔들린 것이다.

3. 필수예제 점검

필수예제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풀지 말고 풀이를 공부하자” 멘트를 사용했는가
- 학생이 풀이를 따라 적게 했는가
- 개념 선택 이유를 말하게 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필수예제는 실패다.

4. 질문 관리 점검

질문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점검한다.

- 문제 푸는 중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 질문 시점을 지켰는가
- 답 대신 질문으로 되돌렸는가

질문이 많았다면

문제 난이도나 단계 선택을 점검한다.

5. 학생 참여 점검

오늘 수업에서

말을 더 많이 한 쪽은 누구인가?

- 교사인가?
- 학생인가?

학생이 더 많이 말하지 않았다면

DRE수업의 핵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6. 과제 점검

과제에 대해

다음을 확인한다.

- 수준에 맞게 분량을 조절했는가

- 새로운 유형을 과제로 주지 않았는가
 - 다음 수업과 연결되게 설계했는가
- 과제가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

7. 최종 판정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O가 6개 이상 → 정상적인 DRE 수업
- O가 4~5개 → 부분 적용 수업
- O가 3개 이하 → DRE 아님

이 기준은

교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DRE수학은

완벽한 교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기준을 지키는 교사를 요구한다.

26. 대체 교사 · 신입 교사 운영 가이드

(사람이 바뀌어도 수업은 유지되어야 한다)

DRE수학 시스템의 목표는 분명하다.

교사가 바뀌어도

수업의 방향과 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를 위해

대체 교사와 신입 교사를 위한

명확한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이 가이드는

경력이 아니라

시스템 준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다.

1. 대체 교사의 역할 정의

대체 교사는

‘임시로 수업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다.

대체 교사의 역할은 단 하나다.

기존 DRE 수업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따라서

대체 교사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지 않는다.

2. 대체 교사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

대체 교사는

다음 요소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수업 10단계 흐름
- 태도 세팅 루틴
- 필수예제 운영 방식
- 질문 허용 시점
- 과제 분량 기준

이 중 하나라도 바뀌면

학생은 즉시 혼란을 느낀다.

3. 대체 교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대체 교사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지킨다.

- 수업 시작 멘트 그대로 사용
- “풀이를 공부하자” 멘트 고정
- 설명 최소화, 질문 중심 진행
- 오답 즉시 정리

‘잘 가르치려는 욕심’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4. 신입 교사 투입 전 필수 조건

신입 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수업에 투입될 수 있다.

- 매뉴얼 1회 이상 정독
- p.26 수업 점검표 이해
- 필수예제 운영 시뮬레이션 경험

이 과정 없이

수업에 바로 투입하지 않는다.

5. 신입 교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신입 교사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이 막히면 바로 설명함
- 문제 수를 늘려 안정감을 주려 함
- 질문을 많이 받아 주려 함

이 행동들은

모두

DRE 시스템을 흔드는 행동이다.

6. 신입 교사의 안전한 운영 전략

신입 교사는

다음 전략만 지켜도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흐름을 외우지 말고 보면서 진행한다
- 설명보다 질문을 먼저 던진다
- 애매하면 필수예제로 돌아간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7. 운영 책임자의 역할

원장 또는 운영 책임자는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수업 후 점검표 확인
- 흐름 이탈 여부 피드백
- 설명 과다 구간 점검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제한다.

DRE수학은

개인의 역량으로 유지되는 학원이 아니다.

시스템을 지키는 순간,

누가 수업을 해도

DRE수업은 유지된다.

27. 학부모·학생에게 설명하는 DRE수학 수업

(왜 DRE수업은 다르게 보이는가)

DRE수학 수업을 처음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많이 안 하네?”

“문제를 많이 풀리지 않네?”

“진도가 느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차이는

의도된 구조에서 나옵니다.

1. DRE수학은 ‘가르치는 수업’이 아닙니다

DRE수학은

교사가 많이 설명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대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학생이 말하는 시간이

교사보다 더 많습니다.

2. 왜 설명을 줄이는가

설명을 많이 들은 학생은

그 순간에는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혼자 문제를 마주하면

다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DRE수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을 최소화하고

사고 과정을 반복 훈련합니다.

3. 문제를 많이 풀지 않는 이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DRE수학은

문제를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줄이되,

사고의 깊이는 늘립니다.

4. 성적은 언제 오르는가

DRE수학의 성적 향상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나타납니다.

1. 질문이 줄어든다
2. 풀이 접근이 빨라진다
3. 실수가 줄어든다
4. 점수가 안정된다

즉,

점수는 가장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5. 진도가 느린 수업이 아니다

DRE수업은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수업이 아닙니다.

되돌아가지 않는 수업입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진도가 더 빠릅니다.

6.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아이의 수업을 보시며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은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이의 문제 접근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7. 학생에게 전하는 한 문장
DRE수학은
대신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혼자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DRE수학의 목표는
단기 점수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혼자 풀 수 있는 힘입니다.

28. DRE수학 운영 한 문장 정의 & 핵심 요약

(이) 매뉴얼을 관통하는 기준)

이 매뉴얼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된다.

DRE수학 수업이란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드는

코칭 시스템이다.

이 문장을 벗어나는 순간

그 수업은 DRE수학이 아니다.

1. DRE수학의 본질 요약

DRE수학은

다음을 하지 않는다.

- 교사가 주도하는 설명 수업 X
- 문제 양으로 압박하는 수업 X
- 점수로 학생을 평가하는 수업 X

대신

다음을 반드시 한다.

- 사고 흐름을 고정한다
 - 질문 순서를 훈련한다
 - 혼자 푸는 경험을 누적한다
-

2. 이 매뉴얼이 해결하는 문제

이 매뉴얼은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교사마다 수업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
- 신입·대체 교사 투입 시 수업이 흔들리는 문제
- 설명 위주 수업으로 되돌아가는 문제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면

사람이 바뀌어도

수업의 결과는 유지된다.

3. 교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기준

수업 중

아래 질문에 “아니오”가 나오면
즉시 흐름을 점검한다.

1. 지금 이 단계가 맞는가?
2. 내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3. 학생이 말하고 있는가?
4. 필수예제를 충분히 다뤘는가?
5. 질문 시점을 지켰는가?

이 5가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4. DRE수업이 잘 작동할 때 나타나는 변화

수업이 안정되면

다음 변화가 나타난다.

- 학생의 질문이 줄어든다
- 풀이 접근 속도가 빨라진다
-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
- 교사의 설명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 변화가
점수 상승보다 먼저 나타난다.

5. 운영 책임자를 위한 핵심 문장

운영자는

교사를 관리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관리한다.

- 흐름을 지켰는가
- 기준을 어기지 않았는가
- 설명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학원은 안정된다.

6. 이 매뉴얼의 사용 방법

이 매뉴얼은
한 번 읽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다.

- 신입 교사 교육용
- 대체 교사 투입 기준
- 수업 점검 기준표
- 내부 운영 기준서

로 반복해서 사용된다.

7. 다음 페이지의 역할

이제

DRE수학 수업 시스템은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쓰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29. DRE수학 수업 최종 체크리스트

(이) 한 장으로 수업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설명이 아니다.

이론도 아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행 기준표다.

수업 전·중·후

이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DRE수학 수업은 흔들리지 않는다.

I . 수업 전 체크 (입실 전 1분)

아래 항목을

수업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 오늘 수업은 10단계 흐름을 따른다
- 오늘 수업의 목적은 진도 X / 이해 O
- 설명하지 않고 질문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 필수예제를 반드시 다룰 계획이다

3개 이상 체크되지 않으면

수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II . 수업 중 체크 (흐름 점검)

◆ 구조 점검

- 태도 세팅을 생략하지 않았다
- 진단 없이 개념부터 들어가지 않았다
- 단계 순서를 임의로 바꾸지 않았다

◆ 언어 점검

- 정답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
- “그냥 이렇게 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 결과보다 과정을 말하고 있다

◆ 필수예제 점검

- “풀지 말고 풀이를 공부하자”라고 말했다
- 학생이 풀이를 따라 적고 있다
- 개념 선택 이유를 학생이 말하고 있다

→ 하나라도 X면

즉시 필수예제로 되돌아간다

III. 질문 관리 체크

- 문제 푸는 중 질문을 받지 않았다
- 질문 시점을 지켰다
- 답 대신 질문으로 되돌렸다

질문이 많아졌다면

→ 문제 난이도 또는 앞 단계 점검

IV. 수업 후 체크 (종료 전 2분)

아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다.

- 오늘 수업에서 학생이 더 많이 말했다
- 설명 없이도 문제 접근이 가능해졌다
- 오답을 즉시 정리했다
- 과제는 반복 가능한 양이다

V. 최종 판정 기준

- ○ 8개 이상 충족 → 정상적인 DRE 수업
- △ 6~7개 충족 → 부분 적용 (보완 필요)
- ✗ 5개 이하 → DRE 아님

이 판정은
교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VII.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
DRE수학 수업은
잘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풀게 만드는 수업이다.
이 문장을 벗어나는 순간
설명은 늘어나고
사고는 줄어든다.

VIII. 이 매뉴얼의 최종 목적
• 누가 수업을 하든
• 경력이 얼마나 되든
• 대체 교사라도
같은 방향, 같은 흐름, 같은 결과
이것이
DRE수학 시스템이다.